

사업기관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사업명	북핵위기의 역사적 기원과 대안적 출구를 찾아서: 복합적 시각을 중심으로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김태균	국제대학원	교수
사업기간	2018.4.1.~2019.2.28	사업비	5천만원

1. 사업목표

- 최근 북핵위기의 원인에 관한 역사적·다층적 요소를 재조명하는 복합적 시각을 제시
- 북핵위기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복합적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시각을 분야별로 전담할 국내외 전문가 간의 협업 강화
- 북핵위기의 출구를 찾기 위해 지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대안적인 해법을 제시
- 북핵위기의 기원과 해법에 관한 새로운 분석의 결과를 집대성해서 단행본 영어 또는 한국어로 출판할 예정

2. 사업의 내용

- 제1단계로, 북핵위기에 관한 역사적 기원을 복합적 차원에서 분석·제시하여 기존의 일차원적인 해석을 극복하고 작금의 북핵위기를 역사적으로 다차원적인 구성물로 재해석
- 제2단계로, 북핵위기에 관한 대안적 출구를 중국과 유럽 등 성공적인 역사적 경험에서 다차원적으로 차용함으로써 작금의 북핵위기를 위한 해법을 북미관계 중심의 일차원적 단계에서 다차원적으로 재구성
- 북핵위기의 새로운 진단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플랫폼으로 구축 (예: 미국의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와 한국의 서울대학교 국제학 연구소와의 연계성 강화)

3. 사업의 성과

- 북핵 위기의 기원을 네 가지 차원에서 다원화하는 작업 추진
 - 북한 국내정치 시스템에서 본 북핵 위기의 기원,
 - 북핵 협상의 패턴연구를 통해 북핵 위기 관리의 역사적 분석,
 - 1960년대-70년대 미국의 중국 핵개발 대처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북미간 핵문제 대립과 협상에 대한 함의 도출
 -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본 북핵 위기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평화적 위기 관리에 관한 연구
- 각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이 높은 연구자 초빙하여 각 주제에 관한 연구
 - Dr. Patrick McEachern(현 미국무부 연구원): 북한의 국내정치적 변수와 북핵 위기 관련 연구
 - 황지환 교수(서울 시립대): 북핵 위기의 패턴 연구
 - 박태균 교수(서울대)와 주재우 교수(경희대): 미중의 행정책과 북핵 문제연구
 - 김태균 교수(서울대): 북핵의 인도주의적 접근과 개발협력 연구
 - 한정훈 교수(서울대): 전체 연구 조율 및 연구 전체의 서론과 결론
-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 학술 연구 발표회 및 현지 자료 수집
 - 2018년 11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 심포지엄(Dr. Patrick McEachern과 통일 평화 연구원 전문가들과의 학술 교류)
 - 2018년 12월 중국 산둥대학교 국제 심포지엄(중국의 한국학 전문가들과의 학술 교류 및 자료 수집)
 - 2019년 1월 일본 게이오대학교 국제 심포지엄(일본의 한국학 전문가들과의 학술 교류 및 자료 수집)
 - 2019년 2월 베트남 호찌민 대학교 현지 자료 조사 및 학술 교류(예정)
- 미국 주요 Think-tank인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의 학술교류를 위한 MOU 체결로 인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 마련.
- 연구 성과물의 단행본 출판 혹은 학술지의 특별호 추진 준비

1. 사업 내용

1) 당초계획

□ 개요

- 사업명: 북핵위기의 역사적 기원과 대안적 출구를 찾아서: 복합적 시각을 중심으로
- 기관명: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 총 사업비: 5천만원

□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현재 북핵위기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체적 해석의 적극적인 도입의 필요성
- 작금의 북핵위기의 기원이 역사적으로 어떤 경유로 진화되어 왔는가에 대한 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북한의 핵개발이 제공하는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미국에 미치는 안보위협에 관한 논의가 현재 북핵위기 연구에서 주류화 되고 있는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의 필요성
- 북핵위기에 대한 일차적인 프레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북핵 위기를 재조명할 수 있는 입체적인 시각을 다각도로 도입하여 복합적인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 목적

- 최근 북핵위기의 원인에 관한 역사적·다층적 요소를 재조명하는 복합적 시각을 제시
- 북핵위기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복합적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시각을 분야별로 전달할 국내외 전문가 간의 협업 강화
- 북핵위기의 출구를 찾기 위해 지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대안적인 해법을 제시

- 북핵위기의 기원과 해법에 관한 새로운 분석의 결과를 집대성해서 단행본 영어 또는 국어로 출판할 예정

□ 기본방향

- 제1단계로, 북핵위기에 관한 역사적 기원을 복합적 차원에서 분석·제시하여 기존의 일차원적인 해석을 극복하고 작금의 북핵위기를 역사적으로 다차원적인 구성물로 재해석
- 제2단계로, 북핵위기에 관한 대안적 출구를 중국과 유럽 등 성공적인 역사적 경험에서 다차원적으로 차용함으로써 작금의 북핵위기를 위한 해법을 북미관계 중심의 일차원적 단계에서 다차원적으로 재구성
- 연구의 방향과 결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자 간의 공동워크숍을 미국의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와 한국의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에서 2회 개최할 예정임.
- 북핵위기의 새로운 진단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플랫폼으로 구축

□ 기대효과

- 학술적으로 북핵위기를 분석하는 현재의 평면적인 프레임을 입체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북핵위기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재정립하는 복합적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연구결과물을 단행본을 출판하고 아울러 학술저널에 특집호로 게재 또한 추진할 계획임.
- 정책적으로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는 데 반영할 수 있는 과거 성공적인 사례를 다층적으로 발굴하고 대안적인 방안을 제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음.
- 기존의 북핵위기 및 북한관련 기성학자들 중심이 아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각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연구자 그룹을 구성하고 연구자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통일·평화·북한 연구의 연구자 층을 확대하는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 북핵위기를 진단하는 데 새로운 대안적인 복합적 시각을 일반 대중과 호환하고 논의의 장을 확장하여 북핵위기에 대한 인식의 다원화를 도모할 수 있음.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

일 정	추진 내용
2018년 4월-6월	Dr. Patrick McEachern과 함께 미국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와의 MOW 체결 준비, Dr. Kevin Gray와 함께 영국 University of Sussex와의 연계 연구 준비
2018년 4월-5월	북핵위기의 역사적 재해석 및 기원에 대한 국내 자료 수집
2018년 7월-8월	북핵위기에 대한 대안적 출구를 위한 국외 자료 수집(중국과 유럽 등 사례 수집 및 북미관계 중심의 사료 수집)
2018년 9월	프로젝트 방향성을 위한 중간 점검 회의
2018년 11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미국의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와 연계 국제 워크숍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2019년 1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미국의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와 연계 국제 워크숍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개최
2019년 2월	프로젝트 마무리 회의 및 출판 준비

2) 실제추진 현황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미국의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와 성공적인 MOW 체결
- Dr. Kevin Gray이 일신상의 이유로 프로젝트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중국 북핵 전문가인 경희대학교 주재우 교수님을 공동연구원으로 추가 영입하여 동아시아의 넓은 시각에서 북핵 위기에 대한 연구를 심도 깊게 진행함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미국의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와의 연계 국제 워크숍을 2018년 11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개최. 국제 북핵 전문가, 공동 연구팀 및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 전문가들과의 학술 교류를 통하여서 다층적인 북핵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통찰.
- 미국 워싱턴 디시의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에서 국제 워크숍 개최 대신, 2018년 12월 중국 산둥대학교, 2019년 1월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동북 아시아 북핵 전문가 및 한국학 전문가와 학술 교류를 활발히 진행. 또한 중국 및 일본의 현지에서의 자료 조사도 함께 수행하여 풍부한 연구자료를 수집.
- 2019년 2월 베트남 호찌민 대학교와 학술교류를 통한 북한의 초강경 군사국가의 한 요인으로서 베트남 전쟁 관련성을 정치경제사적으로 접근. 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 마련.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사업성과 (구체적 내용 기술)

- 북핵 위기의 기원을 네 가지 차원에서 다원화하는 작업 추진
 - 북한 국내정치 시스템에서 본 북핵 위기의 기원,
 - 북핵 협상의 패턴연구를 통해 북핵 위기 관리의 역사적 분석,
 - 1960년대-70년대 미국의 중국 핵개발 대처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북미간 핵문제 대립과 협상에 대한 함의 도출
 -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본 북핵 위기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평화적 위기 관리에 관한 연구
- 세 번의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연구 단계별 연구결과의 검증 및 연

구 발전을 위한 기회 마련

- 2018년 11월 20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Issues and Perspective Seminar: Diversifying the Origins of the North Korea Nuclear Crisis
- 2018년 12월 18일 중국산둥대학교 웨이하이 캠퍼스 동북아 학원: 북핵 위기의 기원에 대한 다각적 접근
- 2019년 1월 29일 일본 게이오 대학교: 북핵 위기의 기원에 대한 다각적 접근
- 국내외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루어진 공동연구를 통해 북핵 연구에 대한 국내 변수 및 미중, 북미 관계의 비교 연구가 가시적 성과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연구원의 출판을 위한 원고 마무리.
 - Dr. Patrick McEachern: Precipitating Crisis: Structure and Agency under Kim Il Sung-Kim Jong Il's Joint Rule
 - 김태균 교수: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본 대북제재와 대북 지원
 - 황지환 교수: 북한 핵 합의의 형성과 붕괴
 - 박태균 교수와 주재우 교수의 공동 연구: 중국의 핵개발과 미중관계로 본 북핵의 현재와 미래
 - 한정훈 교수: 연구 전체의 서론과 결론
- 미국 주요 Think-tank인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의 학술교류를 위한 MOU 체결로 인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 마련.

□ 관련분야 기여도

- 지금까지 논의된 북핵 위기의 진단이 외교정책과 안보적 관점에서 기반한 연구되었던 것을 국내외적인 시각 속에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으로 발전시켜 북핵 위기의 기원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발전시킴.
- 기존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지 못한 북한 국내 변수, 북핵 협상의 경로분석, 핵문제의 미중관계와 북미관계 역사적 비교연구, 북핵 위기의 인도주의적 접근을 북핵 위기와 그 이후 북핵 관리와 연계하는 과정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논의의 범주를 넓힘.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에 강조를 둔 연구 분석은 학계에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고 실제 변화하는 남북, 북미, 북중 관계의 정책 반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이 연구가 기반이 되어 북핵 연구에서 평화학 연구로 확장 발전될 가능

성이 높음.

2.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1) 자체평가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북핵 위기의 진단이 다분히 외교정책과 안보 중심에 기반한 연구결과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사업은 2017년 북핵 위기가 단순히 안보적 관점뿐만 아니라 다층적인 차원과 관점에서 북핵 위기의 기원을 해석할 수 있다는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북핵 위기의 기원을 크게 네 가지 수준에서 다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분석수준은 (1) 북한 국내정치 시스템에서 본 북핵 위기의 기원, (2) 북핵 협상의 패턴연구를 통해 북핵 위기 관리의 역사적 분석, (3) 1960년대-70년대 미국의 중국 핵개발 대처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북미간 핵문제 대립과 협상에 대한 함의 도출, (4)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본 북핵 위기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평화적 위기 관리에 관한 연구 등 4가지로 세분화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런 의미에서 북핵 위기의 다원화라는 문제의식에서 북핵 위기의 관리와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다원화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의식은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 큰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본 연구를 위하여 각 분야에서 가장 전문지식이 높은 연구자를 초빙하여 각각의 주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북한의 국내정치적 변수와 북핵 위기 관련 연구는 미국의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전 연구원인 Patrick McEachern (현 미국무부 연구원) 박사가, 북핵 위기의 패턴연구는 서울시립대 황지환 교수가, 미중의 핵정책과 북핵문제 연구는 역사학자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와 중국 전문가인 경희대학교 주재우 교수가, 북핵의 인도주의적 접근과 개발협력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균 교수가, 그리고 전반적인 연구의 조율과 연구전체의 서론, 결론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정훈 교수가 맡아 연구와 전문성의 높은 정합성을 보이고 있음.

-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연구결과의 검증과 차후 수정을 위한 피드백을 국내, 국외 전문가들로부터 받는 연구발표회를 3차례 실시하였음. 제1차 발표회는 2018년 11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통일평화연구원의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였고, 제2차 발표회는 2018년 12월 중국 산둥대학교 한국학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3차 발표회는 2019년 1월 일본 게이오대학교 한국학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수렴하였음.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연구진의 연구결과물에 반영되어 있으며, 본 연구사업의 다양한 접근법에 대하여 해외 전문가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기존 관련 연구와의 차별성, 각 연구수준별로 국내외 전문가를 연구자로 초빙, 그리고 다수의 국내외 전문가 및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수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은 유의미한 연구를 구성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왔고, 이러한 부분에서 본 연구가 독보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 아울러 본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주요 Think-tank인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의 학술교류를 위한 MOU 체결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음.

○ 사업의 효율성

- 북핵 위기의 진단과 기원의 다원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초빙하였으며, 국제대학원의 전문가 풀(pool)과 전담 연구원을 배치하여 본 사업이 계획하였던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 특히, 기존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지 못했던 북한 국내 변수, 북핵 협상의 경로분석, 핵문제의 미중관계와 북미관계 역사적 비교연구, 북핵 위기의 인도주의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북핵 위기와 그 이후 북핵관리와 연계하는 과정을 각 분야별 전문가가 맡아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각 수준에서 새로운 접근법과 지식콘텐츠를 가미되는 성과의 효율성을 강조할 수 있음.

○ 사업의 영향력

- 앞서 계속 강조하였지만, 본 사업은 기존 주요 연구분석과 차별성을 두

기 위한 작업만큼 연구를 통한 새로운 시각이 학계와 정책 반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앞으로 각각의 연구결과를 출판 작업으로 이어감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학술적 영향력을 넓혀 나갈 것으로 예상함.

○ 사업의 발전가능성

- 본 연구 사업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펼쳐질 다양한 평화공존 가능성이라는 변수와 맞물려 발전될 가능성이 큼.
- 북핵 위기의 다양한 기원을 진단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위기 관리와 평화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본 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평화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와 접목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극복하고 평화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기존의 갈등해결과 평화구축에 성공적인 사례들을 본 사업 결과와 접목하여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사업 규모의 한계로 국제 규모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음.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본 사업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작업이 가능하였다면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확장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판단됨.

□ 향후 계획(내년 계획)

- 앞에서 강조하였듯이, 본 연구사업은 한반도 북핵위기를 다층적으로 진단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타진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속사업을 기획하고자 함.
- 지금까지 본 연구를 위하여 협력하였던 미국의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중국의 산둥대학교, 일본의 게이오대학교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고 평화를 구축했던 성공적인 해외 사례를 발굴하여 비교연구를 통해 한반도에 적용하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자 함.
- 가능하다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분쟁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던 평화구축 방식을 한반도에 활용하는 지구적 규모의 정치적 개입까

지 포함하여 거시적인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grand strategy를 연구하고자 함.

2) 건의사항

사업 진행 관련

- 본 사업의 성격상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결과는 1차적인 기초 자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과 통일평화연구원의 지원이 필요함.
- 사업진행에 있어 국제학술기관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교류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 본 사업의 학술적·정책적 영향력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차후 통일평화연구원의 국제학연구소 사업을 지원할 경우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전방위적 연구와 학술교류가 가능해지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기타

- 해당 사항 없음.

3. 관련자료

대표적 사업 실적

- 추후 제출할 대표 연구물을 위해 개별 연구자들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역사비평’ 특집호 발간 혹은 단행본 출간을 논의 중에 있음.
- 출판 예정에 있는 공동 연구원들의 원고 및 세 번의 학술 교류 행사 결과물을 첨부파일로 송부함.